

# 시대·종단에 따라 형태·색·문양 달라

## 불교 복식 '가사 이야기'

회색 장삼에 밝색빛 가사(袈裟). 가장 익숙한 한국 스님들의 복식이다. 그러나 회색 장삼 위에는 주홍색 가사를 덧대기도 하고, 그 가사의 문양 역시 다양하다. 그리고 가사의 형태를 자세히 살펴보면 직사각형의 조각들이 규칙적인 모양을 이루고 있기도 하다.

스님들이 의식에 앞서 수행하는 가사는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어떠한 형태로 변형돼 왔으며 종단별로는 어떤 차이를 보일까. 불교복식 전문가 김경숙·안명숙씨가 최근 발간한 <한국의 가사> (대원사) 빛깔있는책들을 통해 그 궁금증들을 풀어본다.

# 가사



가사를 정대하는 스님들.

### ▽삼복을 끊기 위해 착용

우리나라에서는 장삼 위에 가사를 덧대어 입는 것이 통용되고 있다. 그러나 인도 등 남방불교권에서는 가사 그 자체를 의복으로 착용한다. 불교 발생 당시 수많은 사상적 유파 가운데 불교 교단을 구별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서 가사가 등장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가사는 단순한 의복의 의미를 넘어선다.

<관중창립계단도경(關中創立戒壇圖經)>에는 "5조 하의(下衣)는 탐욕스러움을 다스리기 위해, 7조 중의(中衣)는 화가 나서 하는 말을 조심하기 위해, 대의(大衣) 상의는 어리석은 마음을 끊기 위해서 착용한다"고 나타나 있다. 즉, 가사를 수하는 것은 불도를 수행하는데 가장 큰 장애가 되는 삼독(三毒)을 벗어나기 위함이다. 이는 가사의 소재와도 연관된다. 부처님과 그 제자

들은 소가 짙은 옷, 무덤에 버려져 죽은 사람의 옷, 사당에 버린 옷 등 사람들이 입다 버린 헌옷을 가지고 만든 가사인 '분소의(糞掃衣)'를 입었다. 이는 의복에서부터 세간적인 욕심을 차단하겠다는 의미를 담는다. 그래서 가사의 색깔 역시 한정될 수밖에 없었다. <사분율> 권16에는 "만일 비구가 새 옷을 얻으면 마땅히 세 가지 종류로 과색(壞色)해야 한다. 하나 하나의 색을 뜻대로 무너뜨려라. 청 혹은 흑, 혹은 목란으로써 아니하고 다른 새옷으로 함은 바일제(巴喏)의 죄범(罪人)이라"고 나타나 있다.

지위 서열의 승과 제도도 확립되면서 가사 착용에 있어서도 서열에 따른 차등이 일반화됐다.

조선시대 가사에는 법계에 의한 차별이 별다르게 나타나지 않는다. 치수에 관계없이 단일색 가사의 모습을 보이고, 고려의 수가사에 비해 팔보·칠보·포도 등 문양이 발달된 것이 특징이다. 이후 구한말에는 승려의 법계에 따라 대의(大衣) 색을 제정해 색상과 무늬의 유무로 등급을 가렸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이후 일제 치하에서는 사찰법에 의해 법계에 따른 의제(衣制) 체계를 갖추게 된다.

### 청·흑·목란 세 색깔 한정은 욕심 차단하겠다는 의미

### 우리나라는 5~25조 까지 홀수만 선택, 밭 전(田) 형태

### 신라-화려, 고려-서열에 따라 차등, 조선-문양 발달

#### ▽예불·설법 등 상황에 따라 입는 가사 달라

율장에 따르면 초기불교 시대 부처님과 그 제자들은 세 가지 종류의 가사를 입었다. 일상복인 '안타회', 예불 등의 각종 의식에 참여할 때 입는 '율다라승', 법좌에 올라가 설법할 때 착용하는 '승가리' 등이 그것. 그러한 가사를 착용할 때는 왼쪽 어깨에 걸치고 오른쪽 어깨를 드러내는 '편단우견'의 형식을 취하기도 했고, 설법을 하거나 위의를 갖출 때는 양쪽 어깨를 전부 감싸는 '통견'의 방법을 따르기도 했다.

그 같은 가사들은 형태상으로 구분된다. 가사의 형태는 세로로 긴 직사각형을 가로로 이어붙인 형태다. 세로로 긴 천의 조각을 '조'라고 표현하는데, 이 조의 개수에 따라 가사의 명칭이 다르다. 우리나라의 가사는 5~25조까지 홀수만을 선택해 만든다. 하나의 조에는 길이가 긴 직사각형인 '장'과 길이가 짧은 직사각형인 '단'이 섞여 있다. 그래서 가사의 무늬는 밭 전(田) 형태를 띠기 마련이다.

이러한 기본적인 가사의 형태를 토대로 해서 다양한 문양의 부착물을 붙이기도 하고, 여러 색의 천을 섞어 만들기도 한다. 이밖에 도구 구족제를 받기 이전에 사미승이 입는 통가사처럼 조와 단이 없는 경우도 있다.

#### ▽사회적 변화에 따라 형태 변해

불상이나 불화 등을 통해 확인한 과거의 가사 형태는 시대에 따라 다른 양상을 보인다. 불교가 처음 전래됐던 삼국시대의 가사에는 발아랑의 모양이 남아있지 않다. 대신 한 장의 천을 재봉하지 않고 그대로 몸에 걸치거나 늘어뜨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리고 신라의 경우 왕이나 왕비가 사문(沙門)으로써 가사를 입는 경우가 있어 가사가 화려해진다.

고려시대에는 가사 밑에 있는 저고리인 편삼, 황색이나 자색 등의 상(裳·치마), 그리고 가사를 갖추는 것이 보편적이었다. 또한 법계(法階, 승직제도)에서의

#### ▽한국 불교 종단들 뚜렷한 차이 보여

한국불교는 다른 나라와는 구별되게 가사 불사를 회향하는 가사 집안 의식을 갖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가사의 형태에서도 매듭으로 된 작장구(着裝具)나 삼죽오(三足烏) 문양 등을 사용함으로써 한국화된 가사의 모습을 보여줬다.

#### 조계-62년 의제법 제정 이후 과색 보급

#### 태고-조선 전통 이어, '자체가 붓다' 의미

#### 천태-토끼, 경전 등 문양, 법계 따라 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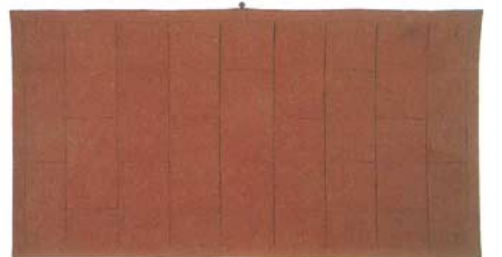
그러나 형태에 있어 각 종단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한불교조계종은 불교 정화 이후 자운·성철·고암 스님의 결의로 새로운 가사를 만들었다. 1962년 8월 28일 의제법을 제정해 그간 이어져 내려오던 홍가사 대신 문양이 없는 과색 가사를 보급하게 됐다.

형태상으로는 5조, 반가사, 대가사로 크게 구분되는데 그 가운데 반가사는 조계종에서 창안한 가사다. 왼쪽에 앞과 뒤를 연결하는 띠를 달아 왼쪽 어깨에 둘러매게 돼 있다. 또한 조계종은 가사가 흘러내리지 않게 하기 위해 왼쪽 가슴 위에 고정된 매듭과 고려도 새롭게 만들었으며, 최근 2003년에는 가사의 색을 밝은 갈색으로 지정했다.

한국불교태고종은 전통 가사인 조선시대 가사의 소재, 색, 문양 등을 그대로 이어왔다. 9조에서 25조까지 있으며, 장엄 방법에 따라 불·보살·경전 명호 가사, 옴마니반메출을 금박으로 찍은 범서 가사, 금사 원단 가사 등 다양한 형태를 보인다.

가사의 색은 주홍색이며 소재는 주로 견을 사용한다. 가사 그 자체가 붓다(不徒)므로 그를 최고로 공양한다는 의미가 깃들여 있다.

대한불교천태종의 가사 역시 9조에서 25조까지



민무늬 과색 가사(조계종·위), 옴마니반메출을 금박으로 찍은 범서 가사(태고종·가운데), 불보살·경·존자 등을 수놓은 가사(천태종·아래).



조계종의 대가사(좌)와 태고종의 대가사. 가사가 흘러내리지 않도록 가사와 같은 색의 끈으로 연봉매듭과 고리를 만들었다. 조계종에서 착안한 이 착장구는 한국불교 가사의 특징 가운데 하나다.

있으며, 9조는 6급 법계인 정법승·13조는 5급 법계인 대력을 품수해야 착용할 수 있는 가사다. 21조 가사는 2급 법계 종사인 스님이 입는 가사로, 대각구사의 가사를 토대로 했다. 삼죽오, 토끼, 금강저, 불·보살·경전 등의 문양을 사용하고 법계에 따라 가사의 색을 보라색(9조), 갈색(13조), 주홍색(21조, 25조) 등으로 차별을 둔다.

강신재 기자 thalishw@buddhapia.com

스님이 만든 **후불제실시**  
**스님, 불자님 전용 가방**

스님, 불자님 외출 시 승복 및 필수용품을 넣는 좋은 가방을 개발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권해드립니다.

**가 격**  
본가방 1개 + 작은가방 1개  
3만 8천원  
\* 택배비는 1개 주문시 구매자 부담  
\* 2개 이상은 판매자 부담

**사 이 즈**  
● 본가방: 가로 440 x 세로 350 / 너비 90 x 끈길이 110  
● 핸드가방: 가로 285 x 세로 210 x 너비 70  
● 제조원: 국내 (한국산)

● 특 징: 불자님께 꼭 필요한 필수 용품, 승복 내장 시 구김 및 흐트러짐 방지 (고무밴드 부착), 가방끈 탈부착 가능, 불자님께 맞는 풍위있는 디자인 (용자, 佛字 고급자수), 어깨끈 사용시 미끄러짐방지 기능 (찍찍이 부착), 열화 방지 기능 (다른 가방과 혼동 방지), 물세탁 가능, 의장등록 출원중  
수익금은 사찰 건립 추진금으로 쓰입니다.

● 고급원단 사용으로 견고하며 국내에서 제조되어 반 영구적이며 모든 스님과 불자님께 선물용으로 좋습니다.

● 가방이 수입품이거나 아끼시 100% 반품 가능합니다.

● **우발계 - 제품을 받아보신 후 입금 아시면 됩니다.**

● 주문전화: 대한불교 법정사 051)507-7555  
[계좌번호: 농협 121072-56-116911 예금주 조연순]

**사암침술과 맥을 알면 불치병은 없다**

국내 어느곳에서도 배울수 없는 내용과 비법을 4개월만 배우면 초보자도 달인이 될 수 있습니다. 힘들고 어려울때 미래를 준비하십시오!  
**속성비결!! 책값지도!!**

**사암침술 강좌**  
▶ 과정: ● 기초과정: 2개월  
● 고급과정: 2개월  
● 맥진반 ● 사암침술반 ● 즉효요법반  
▶ 내용: 12경락과 경근, 사암도인침술법, 장부의 허실증 판단, 황제내경맥진법, 맥조절법, 오행처방법, 침술즉효요법(一鍼法), 뼈교정법, 실습 위주 강좌  
▶ 개강: 2005. 7. 4  
월·화반(주·아): 4개월 완성)  
\* 침술사 자격증을 교부합니다.

**매화역수 강좌**  
간단한 수리학(1~9)만으로 운명을 판단하는 비법을 공개합니다. 쉽고 간단하고 재미이며, 명리수준을 최고위 과정까지 높여 드리는 국내유일의 강사로 년운과 월운은 물론 일운까지 정확하게 적중시키는 최고의 학문입니다.  
▶ 개강: 매주 주말반 수시접수

**정통명리강좌**      **정통풍수강좌**

**사 암 침 술 학 회**  
• 서울: 종로 3가 지하철 12번 출구 옆 (화암빌딩 402호)  
문의: 02)2267-9136. 011-307-2975

**소원성취**

**신비한 영험 부엉이 길상도**

귀암 합정

불초 소승은 영웅도 토굴에서 수행정진하고 있는 승려로써 부처님 법과는 심안팔천리나 어긋나는 행위인 줄 알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많은 분들의 어려움을 겪으시는 바 소승이 도움이 되고자 부엉이(길상도)를 소개드립니다.

소승은 법화경을 토굴에서 10년 동안을 수행 주력한 원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소승이 원력을 세운 달마도도 첫번째 방송에 소개된 바 많은 분들의 호응이 컸었고 지금 부엉이(길상도)를 처음 소개하려 합니다. 부엉이 길상도의 원력은 늘 노심초사 걱정이 많으신 분들께 좋은 인연을 만들어 주며 짐을 갖고자 하시는 분, 사업을 하시는 분, 자식 걱정 하시는 분, 시험을 앞둔 취업과 학업성취 등의 이르고자 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는 길상도이므로 벽에 걸어 놓으면 3년안에 원하시는 일들이 나날이 변하여 성공 하실것입니다.

나무관세음보살

뜻이 있으신 분께서는 주소, 나이, 생일,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FAX로 보내주시면 정성을 다하여 보내드리겠습니다.  
\* 달마도도 한철 무료 보시합니다.

TEL : 032)886-3586 H-P: 011-9458-6616  
FAX : 032)886-3587  
계좌번호: 우체국 201103-02-149423 예금주 김금수

**서래달마원 원장 석구암 합장**

山蔘으로 효력을 못보셨다구요?  
**蔓蔘(만삼)을 권합니다**

최상의 신비스러운 영약!

저는 강원도 정선 불암사 신도로서 주지스님의 권유로 심심 산골의 山田을 마련하여 만삼재배에 성공했습니다. 옛부터 전해 내려오는 이야기는 여자들에게 산삼보다 효능이 좋다하여 명문대가 부인들만이 해산 후 몸조리에 사용될 정도로 귀한 약재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만삼은 독성이 전혀 없고 성질이 평하여 계절에 관계없이 男女老少 누구나 먹을 수 있으며, 어떠한 식품과도 궁합이 잘 맞는 좋은 건강식품이라 합니다. 많은 분들이 만삼을 복용 후 에 자랑을 하십니다. 이와 아울러, 중국문헌에는 고려인삼보다 蔓蔘가 좋다고 실려져 있습니다. 정선산삼(長鬚山蔘)을 복용하고 도 별 효험을 못보신 남자, 여자분들이 만삼(蔓蔘)을 드시고 탁월한 영험을 체험하신 분들이 많이 주문이 돼드라고 있습니다.

**\* 약효를 보신 분들의 이야기 \***

- 기관지가 좋아졌다.
- 만성위염이 나아졌다.
- 사지무력증이 나아졌다.
- 천식이 없어졌다.
- 만성피로가 없어졌다.
- 몸에 부기가 빠져졌다.
- 임파선이 나아졌다.
- 자궁 물욕이 없어졌다.
- 변비가 나아졌다.
- 혈색이 좋아졌다.
- 기력이 좋아졌다.
- 백혈병이 나아졌다.
- 아프던 무릎관절이 안 아프다.
- 손발이 저리고 시린 것이 없어졌다.

◆ 스님들께는 시주불사하는 마음으로 영가에 드리고자 합니다.  
(생물: 시중가 10kg당 40만 원에 20만 원에 드리겠사 오며, 단, 10kg 단위 이상만 택배가 가능합니다.)

● 1Box(60포) ← 20만원      ● 2Box(120포) ← 35만원

1Box(60포: 15만원)      2Box(120포: 25만원)

◆ 주 소: 강원도 정선군 동면 호촌리 323번지  
◆ 연락처: (033) 563-8292, 562-2165  
◆ 성 명: 심정택 H·P: 011-9242-8292  
◆ 농협계좌번호: 315024-52-012392 (예금주: 심정택)